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학습 기관 및 서울학생배움터에 대한 의견서

■ 내용

귀 기관이 2011년까지 지정한 215개의 ‘현장체험학습기관’ 중 테마동물원ZooZoo, 민속체험관 쇠꼴마을, 생명과학박물관 등 살아있는 동물을 무분별하게 만지고 생태적 습성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육하는 14개 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를 요구하며, 현재 시행중인 ‘서울교육인증제도’ 기준을 강화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만지거나 전시하는 시설은 ‘서울학생배움터’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 사유

국내에는 동물원의 등록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 ‘동물원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모든 동물원은 사실상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동물의 복지와 체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부나 농림부의 공식적인 인증/등록/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것은 동물학대적 요소가 포함된 매우 비교육적인 행동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I. 동물 전시의 일반적인 문제

국내 대부분의 동물 전시 시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일부를 제외하면 법이 규정한 사육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물의 생태와 습성에 맞는 장소를 제공하기 보다는 관람객의 편의와 업체의 상황에 맞춰 동물을 전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 면을 투명한 유리로 둘러싼 사육장의 경우,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자주 숨어야 하는 동물들이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해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몸길이의 2~3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은 상동증(Stereotypy) 같은 이상행동

과 함께 동물의 폐사율을 높입니다. 실제로 체험 동물원에 흔히 전시되는 토끼, 햄스터, 병아리 같은 소동물들은 사람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쉽게 폐사하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자체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사 시 외부에서 동물을 새로 구입해 전시장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사육됩니다. 대형 수족관의 경우 아예 정기적으로 해양생물을 반입하면서 시설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반입되는 생물 중 일부는 야생에서 잡혀온 개체들입니다. 또한 소규모 동물원에서 손쉬운 관리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뜯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설치한 철창)은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동물에게 발바닥과 관절의 기형이나 부상을 유발해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비윤리적 동물 사육방식입니다.

II. 동물 체험 프로그램

동물을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행위는 사람에게서는 1회성에 그치는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만짐을 당하는 동물에게는 장기간의 신체 억압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행동으로서 이는 동물보호법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기본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동물을 다룰 경우 동물의 부상 및 폐사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반대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의 공격성을 증가시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동물에게 건초, 당근, 밀웜 등을 관람객이 직접 먹이는 ‘먹이체험’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동물이 흥분할 경우 관람객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며, 먹이를 받아먹는 동물은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일 관람객의 ‘숫자’에 따라 단일한 먹이를 불규칙하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Ⅲ. 동물체험의 영유아/어린이 감염 위험

동물 체험에 이용되는 거북이, 뱀, 도마뱀 등 파충류와의 접촉은 살모넬라 인체 감염의 주요 경로로서, 살모넬라 감염은 출혈을 동반한 설사, 구토, 고열, 경련성 복통과 함께 심한 경우 패혈증이나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살모넬라 인체 감염의 69%가 거북이, 악어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감염환자의 71%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였습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미국은 1975년부터 애완목적의 거북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방문할 때도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난 2013년 8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살모넬라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파충류와 접촉 금지’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5세 이하의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살모넬라균에 대한 감수성이 5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처럼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조차도 전시되는 거북이 중 30%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2008, J. Vet. Sci. 9(2): 177-181)

Ⅳ. 왜곡된 생태교육

뱀을 목에 감거나, 작은 동물을 손으로 들고 구경하는 방식의 동물체험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생동물의 신체를 아무 제한 없이 만지거나 압박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어 야생동물에 대한 반생태적이고, 비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물체험은 사실상 처음 보는 동물을 만져보았다는 호기심의 충족 외엔 별다른 교육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물이 동물의 생태에 대해 훨씬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검증된 교육방법입니다.

■ 결론

우리 단체는 전시동물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에서 ‘동물원법’ 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동물전시/체험업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인증’을 받은 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전시와 체험에 교육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이 그것을 권장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4년 6월 1일, 우리 단체를 포함한 “2014 초록연대”와의 협약식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초록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일부 동물체험 시설들은 그러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물학대, 생명경시 업체들입니다. 비록 ‘현장체험학습기관’ 제도가 2012년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2011년 까지 인증 받았던 기관들의 인증은 기한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이 우리 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동물체험 및 전시시설의 ‘현장체험학습기관’ 인증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교육인증제도’ 역시 여전히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서울학생배움터’로 지정되어 있어 함께 인증을 취소하고, 추후 학생배움터 지정 시 동물전시/체험 시설은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서울교육인증제도’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첨부 1.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학습 기관 중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

번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형태
1	생명과학박물관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5-207	2071-6063, (F)2645-0955	동물체험
2	코엑스아쿠아리움	135-97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코엑스 내)	6002-6214, (F)6002-6262	동물전시
3	(주)한화63시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789-5659, (F)789-5500	동물전시
4	국립광릉수목원	487-82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031-541-3807, (F)540-1199	동물전시
5	서울대공원	427-702) 경기 과천시 막계동	500-7114, (F)500-7991	동물전시, 쇼
6	양평애벌레생태학교	476-82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031-771-0551, (F)031-771-0143	동물체험
7	어린이대공원	143-180)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450-9306, (F)456-9688	동물전시, 체험
8	에버랜드	449-715) 경기도 용인시 서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031-320-5000	동물전시, 체험
9	테마동물원ZooZoo	412-8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	031)962-4500, (F)031-963-8345	동물전시, 체험, 쇼
10	민속체험관 쇠골마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0-6	031-959-0124 (F)031-959-0124	동물전시, 체험
11	울봄식물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102-3	031)798-3119	동물체험
12	옥토끼 우주센터	인천 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026번지	032)937-6918	동물전시
13	일산 동물의 왕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9-9	031-915-9933	동물체험
14	자연나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85번지	031-634-6339	동물체험

첨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학습기관 현장 사진

양평애벌레생태학교



민속박물관
쇠꼴마을



원숭이는 2014년 12월 동물자유연대의 불법사육 고발 후 부산
더파크 동물원으로 이송

테마동물원ZooZoo



국립광릉수목원



첨부 3. 2014년 6월 1일 “2014 초록연대” 협약식



초록연대, 생명 안전 7개 약속공약

- 약속 1. 원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약속 2. 화학사고와 독성중독, 이제 그만
- 약속 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 약속 4.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정책
- 약속 5.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
- 약속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 약속 7. 사람과 생명을 위한 도시와 국토

초록학교 만들기 10대 추진과제

- ① 기후변화 교육 등 지구를 살리는 환경교육 강화
- ② 학교 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
-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 자립형 학교 운영
- ④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 실시**
-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급식 실현하고 주1회 채식 급식 확대

- ⑥ 사회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사직무교육 및 학부모 교육 실시
- ⑦ 인조잔디운동장을 최소화, 누구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조성
- ⑧ 학교 주변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
- 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
- ⑩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초록학교만들기추진단 운영